

## 제5편 온천사(溫泉史)

온양온천은 천혜의 온천수가 용출하여 예로부터 휴양온천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왔고 그 명성이 대단하였다. 이에 옛 문헌에 나타나는 온양온천에 대한 기록과 온천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온천사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



### 1.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온양온천

#### 1) 溫陽溫泉

溫陽溫泉에 對한 記錄은 東國輿地勝覽 卷 19에 依하면 百濟時代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고을 이름을 줄곧 溫井, 溫水, 溫昌, 溫水等 溫泉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만 불리어 온 것으로 본다. 옛 溫陽郡은 原來 百濟의 湯井郡이었는데 高麗初에 이르러 이름을 溫水郡으로 고쳤다. 李朝때에는 太宗 15년에 溫昌, 16년에 溫水로 고쳐 불리어오다가 世宗 14年(1432)에 임금이 溫泉에 거둥하여 只今の 이름으로 고쳤다. 舊記에 「溫泉은 在郡西七里許에 있는데 炳을 고치는데 效驗이 있다. 李期의 世宗 그리고 世祖가 일찍이 巡行하여 留浴했다. 그 때 머무른 御室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다. 두 임금 以外에도 肅宗, 英祖, 正祖等 많은 임금이 자주 留浴하였다. 그 遺蹟으로는 世祖때에 이 溫泉옆에서 冷泉이 發見되어 當時 上端의 發露이다 하여 八道에서 賀表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記錄을 담은 駐驛神井碑와 英祖 35年(1760)에 王이 溫宮에 오셨을 때에 往世子(思悼世子)가 行啓하여 武術을 鍊磨하던 射場을 紀念키 위해 王이 郡守 尹琰에게 命하여 射臺에 3株의 槐木을 심게 하고 靈槐臺라 稱하였는데 이곳에 正祖 19年(1795)에 세운

御製靈槐臺碑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御室로 쓰던 溫宮은 原來 神井館(現 溫陽觀光호텔) 터에 있었으나 1904年 日本 經濟侵奪에 依하여 撤去되었다고 한다. 溫泉에 관련된 歷史的 事實을 여지 도서에 의하여 列記해 보면 顯宗 6年 乙巳(1665)에 王이 溫泉에 臨行하여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았는데 文科에 5人, 武科에 90人을 뽑았고, 同 8年 丁未(1667)에 慈殿을 받들고 溫泉에 임행하였는데 이 때는 中宮도 같이 임행하였으며 肅宗 43年 丁酉(1717)에 王이 溫泉에 임행하여 科擧를 보여 인재를 뽑았는데 文科에 7人, 武科에 200餘人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王의 임행에 關聯된 다음과 같은 詩도 있다.

“溫泉이 中興하니 溫泉을 生覺하고 行殿의 感懷는 옛 生覺이 깊었구려 옛날의 累代임금 모두 다오시어서 이곳에서 주무시니 얼마나 다행한가. 옛날인이 더욱 마음이 새롭다. 대나무로 屏風침은 옛부터 전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옛 생각이 새롭구려.

根本까지는 오히려 溫殿속에 머무는데 그 때 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서구나.”

“行在所의 門을 앞에 선 작은 碑碑은 지난날 임행하던 때의 추억만 새로워라

이제 옛일 생각하여 營閣을 命하오니 이 사실은 어제시에도 仔細합니다.

溫殿中에는 두 개의 徽章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머물러 둔 것이고 하나는 丁酉年에 남긴 것이다.”

이같이 溫陽溫泉이 發見되어 그것을 利用한 것은 매우 오랜 듯 하다. 溫陽溫泉에는 전다리(跛足)만 모인다는 傳說도 있거니와 一般皮膚病에 有效한 溫泉으로 有名해지자 高麗, 李朝를 通해서 널리 宣傳 되었기 때문에 疾病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李朝諸王들도 이곳을 찾는 때가 많았던 모양이다. 李朝初期 夢庵 李 淑城의 靈泉瑞液詩에서 溫陽溫泉水의 효과와 영험을 노래한 것만을 보아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溫陽溫泉은 1960年代 以後 一般 皮膚病에 有效한 溫泉開發을 主軸으로 새로운 숙박시설이 갖추어지면서 顯忠祠 等 인접한 觀光자원이 개발됨에 따라 더욱 各광 받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繁昌함을 누리게 되었다.

## 2. 일본인들이 기록한 온천관련자료

온양은 지명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따사로움과 포근하고 편안함을 안겨주는 매혹의 도시로서 떠 오른다.

그러므로 국내에 많은 온천장이 있긴 하지만 온양 온천이란 지명자체가 천혜의 온천장으로서 풍기는 독특함으로 인하여서뿐 아니라 수질이나 그밖의 모든 조건들이 국내 제일의 온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6~70대이상 세대들은 제2의 인생의 첫출발인 결혼식을 올리고 미래의 새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단꿈을 꾸기 위해 호젓하고 이름있는 온천장으로서의 신혼여행을 감에 있어 우리 고장

온양온천장을 많이 찾았던 탓으로 이제 노년기 이후의 인생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온양 온천을 추억이 담긴 도시로서 기억에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에서 온양온천을 소재로한 문학작품, 영화, 방송극 등에 온양온천이 자주 등장하는 명소로도 각광 받은 도시이다.

이에 우리고장 온양온천의 온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들을 모아 온천 발전에 따른 발자취를 더듬어보겠다.

## 1) 온양온천

### 가) 온양온천의 위치

온양온천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아산군청 소재지)에 있고 경부선의 하나인 천안역(경성역으로부터 남으로 약 97km)으로부터 서로 약 14km의 지점에 위치하고 천안과 광천간을 연락하는 경남철도(경남철도 주식회사가 경영)가 있고 철도편으로 경성으로부터 단지 3시간(천안, 온양온천간 29분 외에 자동차 편도 있음)으로 온천장에 이른다.

### 나) 온양온천의 연혁

온양온천리로부터 동방 천안군계에 이르는 지역은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신라시대에는 탕정주라 불리던 일도 있었다.(구 온양군 연혁참조)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온수군이라 불려졌던 지역이었다.(동국여지승람 19에 의거) 이러한 지명은 다분히 현재의 온양온천에 인연이 있는 듯 싶고 또한 이에 의하면 본 온천의 존재는 백제시대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건물은 이조태조 시대의 건축, 대원군이 이를 증수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경남회사 직영후 대부분 철거), 더구나 온천장의 서쪽에는 이조의 건축에 의한 온궁이라 불리는 궁전이 있었으나 문목의 병선에 불타버렸다.

### 다) 온양온천의 유래

온양온천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시대 때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사료되나 그것은 지명으로 미루어본 고증이며 널리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고려시대이며 이조시대에 특히 유명해졌다. 세종, 세조, 현종, 숙조, 영조, 정조 왕과 같은 분은 가끔 여기에 오셨기에 그 유적과 국비가 온천장 부근에는 많다.

### 라) 지형

온천장은 해발 20m미만인 좁은 평야로 서쪽에는 북방의 난류로서 곡교천에 합치는 온천천을 끝으로 사방은 해발 150m이하의 구릉으로 그 지형은 단조롭다.

### 마) 지질

아산군의 대부분은 조선반도를 북동 동서로 사단되는 화강암대 중에 있고 주로 전한무리아계의 변질 암류 이에 관입 접촉한 것이 분명하며 이로부터 단상흑운모 각섬석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 이 화강암은 홍성, 예산 및 당진의 3군에 걸쳐 분포된 흑운모정사장석화강의 이상으로서,

보령, 서천 및 청양각부에 확연한 하부주라기층보다 고려시대의 것이다.

바) 온천

탕맥, 원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차가 있음

사) 용출량

용출량은 1분간 0.3입장m, 즉 1시간 약 1.6k입방(9석)으로 보아 대과 없음(경남회사직영후의 용출량은 1일 1만 수천석)

아) 기후와 온천과의 관계

기압과 용출량사이는 일반 온천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즉, 기압이 낮을 때는 높을 때보다 용출량이 많고 강우시에는 온천은 혼탁 천온의 저하, 기타 수질변화 등이 없음

자) 지질구조와 온천과의 관계

이 지역의 지질구조는 특히 온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지질 구조선이 온천의 상승으로서 특별한 성질이 있을지 열원이 특히 이 지역에 있어 비교적 얇게 존재하는 것일지……. 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온천을 끌어내는 다른 특종의 통로로서 용출하는 것일지……. (이상은 조선 총독부 지질조사 소조사서에 의함)

## 2) 온양온천 안내

온양온천은 최근 수십년간 온양온천주식회사에 의해 경영되어 왔으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천혜의 영천을 개발하여 널리 세인에 소개되어 오던중 1926년 11월 1일 경남 철도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받아 예의 여러모로 설비하고 아울러 온양의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개량을 계획한 이래 1년반동안 시설완비를 전제로 하여 신탄원의 시추에 힘써 2개소를 굴진 300척에 달해 섭씨 50도의 온천이 밤낮(1일동안) 1만 수천석 용출을 이루게 되어 많은 온천수를 얻게 되어 미온탕원은 전부 이를 폐지, 2개소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사용하게 되었음.

가) 신정관 유래

경남철도 주식회사가 개축한 온천장의 총칭을 신정관이라 명명함은 탕원 부근에 국가의 조영물로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신정비의 비문에 「천순 8년 봄 2월 이상세조 남유에 증하여 역을 온천군 온양에 두고 4일 신정이 갑자기 용출마당에 범람하였음. 세조가 이를 보고 놀라 과거 하자 여전히 용출하였다. 그 차기는 눈과 같고 그 맑기는 거울과 같아 탕은 온하고 천은 냉하였다. 천안 희열에 참, 8도에 표하여 축하함」이라고 있고 동회사에서 신탄 시추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약 15척에서 불과 3척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냉천, 하나는 온천이 맞서 용출함에 신비한 비문이 결코 과장함이 없는 사실로 판명된 사실에 입각 신정 두글자로 상호에 붙여 신정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3) 해방과 온천

1945년 8월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신정관은 국가가 직영하는 철도호텔 부설 대중탕과 철도호텔시설은 온천장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며 그 맥이 이어져 왔으며 한편 탕정관은 귀속 재산관리 형태로 관제국에서 대중탕과 온천장 시설로서 여관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중 6·25동란이 발발하고 온천의 모든 사정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6·25동란이후 9·28수복 당시로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탕정관 온천수의 활용기능 용량중에서 40%비율에 대한 온천수를 온양 시내 몇 개 여관이 사용계약을 체결 온천객을 맞는 형태여서 온천수의 새로운 온천장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었었다.

그런데 6·25동란중에는 온천수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화된 상태였음) 온천수가 넘쳐흘러 내려가는 상태여서 새로운 온천수의 개발에 대해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질서가 점차 제자리를 찾게 되고 온양도시가 현대적으로 급속하게 재건되며 온천장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고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 4) 온천의 재발견

인구의 증가와 교통의 편의, 소득의 증대등 여거 가지 요인에 따라 온양온천의 내왕객은 날로 늘어나고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소재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온양을 중심으로한 일대가 관광 명승지로서의 각광을 받게 되며 특히 온양온천의 휴욕객들의 급증으로 온천장과 숙박시설들의 확장과 개선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무 누구도 좀처럼 손대기를 엄두도 못내거니와 설사 시추를 한다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는 엄청난 투기로 여겨왔던 온천장의 시추는 누군가에 의해 시도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무렵 평소에 온천장 개발에 남다른 의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오던 온양시 온천동 거주 이 관현이 일정 때부터 이용되어오던 기존 온천장 이외의 새로운 온천장을 1958년에 개발함으로써 온양온천의 온천수 사정을 일대 개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온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는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관형에 의하여 새로운 온천장이 개발되기 이전의 온천수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정때 활용되어오던 기존 온천장인 신정관 소유 온천장과 탕정관 소유 온천장이 일정때에는 온천장의 주종을 이루어 왔는데 한때 상기 온천장이외의 온천장을 개발하고자 일본인이 시도하였던 일도 있었는데 일본인 일고·장기 등이 온양에 새로운 온천장을 개발코자 3년간에 걸쳐 시추

작업을 하다 실패하고 야밤도주한 일도 있어서 좀처럼 온천수 발굴 시추작업에 손대기를 꺼리고 있던차 이 관형이 당시의 온양읍 온천 55번지-20의 대지에 구식 디딤 방아식 굴착기를 농기계 제작 전문가에 기술적 용역을 의뢰하여 개량된 공법을 가미 20~30m과는 정도의 기능밖에 못미치는 구식방식에서 탈피 150~200m까지 파내려 갈 수 있는 비교적 대형화 굴착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약 5년여에 걸친 공정 끝에 드디어 대량의 온천수를 공급하게 되는 개가를 올렸으며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2, 제3의 새로운 온천광의 개발이 속속 이루어지게 되었고 온양의 온천수 사정은 밝은 전망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많은 여관의 온천수 공급과 여러 곳의 대형 대중탕이 생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관형이 새로운 온천광을 개발 시추하기로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시일에 걸친 법정시비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로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관형은 이와 같은 새광천의 개발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온천법 제정과정에서 당시 행정관할 관청인 아산군의 사회과장 조중국에서 온천법 제정에 참고토록 많은 자료 지원과 온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의 걸쳐 몸소 체험했던 경험과 기술상의 소중한 자료들을 제공, 수자원 보호등을 위한 온천법 제정에 크게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온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 당시 사회과장 조중국에 의하여 온양에서 제공되거나 시안으로 내놓은 온양의 자료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일정때만 해도 일인들에 의하여 온천수가 특수층에게만 독점되어 옴으로서 온천장의 주민들이 온천수의 혜택을 고르게 못누렸던 지난날의 쓰라림을 없앴고 6·25전란이후 수복 당시로부터 오랫동안 탕정관 소유(당시 관재국 소유) 온천광의 6대 4비율중 40%비율만으로 그것도 몇 개 여관만이 이용해 오던 온천수의 이용의 폭이 넓게 되고 현재와 같이 많은 온천광이 개발되어 급기야는 온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참고로 협업중인 대중목욕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목욕탕-대중탕(1988. 6. 10현재)

삼보탕	온천동 238-1	신천탕	온천동 206-30
신정관	온천동 242-18	양산탕	온천동 90-9
뉴서울탕	온천동 57-2	제일탕	온천동 217-2
옥수탕	온양시 모종동	청주탕	온천동 78-3
보건탕	온천동 90	온주탕	온천동 84-18
온양탕	온천동 90	현대탕	온천동 44-89

※ 위 자료는 1990. 12. 30. 현재 상황이다.